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가 자아이미지에 미치는 융합연구 : 교수자음성이미지의 매개효과

김정열*
충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Convergence of the Image of the Professor in Human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Self Image : Mediating effect of voice image

Jeoung-Yeoul Kim*

Addic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Department, Ch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 중인 대학생 18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대학생에게 자아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 이미지와 음성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음성이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면 음성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자아이미지 수준도 향상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키워드 : 중소기업 인적자원, 대학생, 교수자이미지, 자아이미지, 음성이미지,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88 university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 present self - image data to university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human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age of the traine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he self - imag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age of the trainee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voice ima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oice image and the self - imag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voice image i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of the talent and the self - imag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as the image level of the talent related to the human resource of SMEs increases, the level of the voice image increases and the self image level also improves accordingly

Key Words : Small Business Human Resources,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image, Self image, Voice imag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지 시대, 디자인 시대, 융복합 시대라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시대는 국가이미지, 기업이미지, 개인이미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장인 대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수자이미지와 학생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강사는 어떠한가 한다” 라든지. “학습자들은 어떠한가 한다”라든지 등 나름 교강사간에, 학생들간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학생활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미지 경쟁 시대에 적응력 및 취업준비와 진로 결정을 위해 대학생 자신의 이미지관리는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융복합 시대에 좋은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융복합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 관리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것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대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이미지관리 또는 이미지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자주 접촉하는 교수와 강사들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받으면서 이미지관리 및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강사들은 학습자들의 롤 모델이며, 학습자들의 고민을 상담을 통해 들어주며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인적자원이다[3-5].

반두라의 모방이론에 따르면, 교강사들은 학습자들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이다[6]. 이러한 모델이 제시되어지면 학습자는 이 모델을 모방하거나 동일시하여 자신이 앞으로 이 모델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는 모델을 통하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다.

교수자이미지와 관련하여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7,8].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이미지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 자기효능감의 관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이미지관리하는 방법의 연구들은 제한적이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

와 자기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가 매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에게 자아이미지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교수자이미지와 대학생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가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수자이미지와 음성이미지 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 교수자이미지와 음성이미지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먼저 교수자의 뚜렷한 말투에서 나오는 음성이미지를 통하여 대학생에게 학업과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진다. 이로 인해 대학생의 내적이미지가 향상되고 향상된 내적이미지는 겉으로 표현되어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외모관리와 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10]. 문미숙은 교강사는 학생들이 교강사라는 직무에 대하여 많은 기대들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의 존경심을 나타내며,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호존중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수자이미지(정서, 외형, 행동)가 대학생 자아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11].

2.2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송인섭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신체의 급격한 변화, 사회성의 발달,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12].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가 높아지면 학습자의 자아이미지가 향상되는데 이는 교수자이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록 학습자들은 교강사에게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강사는 자기 자신의 스승이므로 이에 따른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수업에 대한 건강한 동기부여가 강화하게 되고 교수자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자아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0].

김보현의 연구에서 교강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13].

Hom & Gure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신체이미지는 대학생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지각된 신체이미지와 격차가 작을수록 정서적으로 만족함 정도 높게 형성된다고 하였다[14].

또한, 대학생 시기는 심리적인 불안정, 자아정체감에 대한 불확실함,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델과 동일시함으로써 모델과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때 교강사들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진로와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5].

2.3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적이미지와 음성이미지는 내적자기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지한 교강사들의 정서이미지와 음성이미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내적인 자기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노장옥의 연구에 의하면 교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6].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법은 편의표집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3.2 조사도구

3.2.1 교수자이미지

이 척도는 김경숙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8]. 전체 신뢰도는 .935이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이미지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외형적, 내적, 사회적이미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3.2.2 자아이미지

이 척도는 임수희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10]. 총 4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는 .652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이미지는 대학생 자신의 내면적으로 형상화된 이미지를 말한다.

3.2.3 교수자 음성이미지

이 척도는 김경숙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8]. 신뢰도는 .857이다. 본 연구에서 음성이미지는 교수자의 스피치로서 대학생들이 들어서 지각된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3.3 연구절차

이 연구절차는 우선적으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고, 연구문제2를 해결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p(%)
gender	man	60	31.9
	Woman	128	68.1
grade	1 Grade	62	33.0
	2nd grade	126	67.0
Sum		188	100.0

성별의 경우 남자가 60명(31.9%)이고, 여자가 128명(68.1%)이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62명(33.0%)이며, 2학년이 126명(67.0%)이다.

4.2 교수자이미지, 자아이미지와 교수자음성이미지 간의 관계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와 교수자음성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수들 간의 유의수준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수는 .334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가 높아지면 자기자신의 자아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와 교수자음성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수는 .307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이미지가 높아지면 교수자음성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수는 .629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수자음성이미지가 향상될수록 대학생의 자아이미지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image, self image and Professor voice image

	Professor image	Self image	Professor Voice image
Professor image	1		
Self image	.334**	1	
Professor Voice image	.307**	.629**	1

* $p < .05$, ** $p < .01$, *** $p < .001$

4.3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의 매개효과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17].

4.3.1 매개효과 검증

교수자음성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the trainer image on the inner self image

	Step 1	Step 2	Step 3
	Voice image	Self image	Self image
constant	.999	2.616	2.529
Professor -image	.665***	.194***	.135**
Professor Voice-image			.088*
R ²	.396	.111	.127
F	195.160***	37.327***	21.571***

* $p < .05$, ** $p < .01$, *** $p < .001$

교수자이미지(독립변수)가 교수자음성이미지(매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Step 1에서는 교수자이미지($p < .001$)는 교수자음성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면($B = .665$) 교수자음성이미지 수준이 높아졌다. 교수자이미지가 교수자음성이미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9.6%이다.

교수자이미지(독립변수)가 자아이미지(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Step 2에서는 교수자이미지($p < .001$)는 자아이미지(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면 ($B = .194$) 자아이미지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이미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1.1%이다.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Step 3에서는 교수자이미지(독립변수), 교수자음성이미지(매개변수)가 자아이미지(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tep 3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p < .05$)는 자아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교수자이미지(독립변수: $p < .001$) 또한 자아이미지(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 중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교수자 이미지 수준이 높아질수록($B = .135$), 교수자음성이미지 수준이 높아질수록($B = .088$) 자아이미지 수준이 향상되어지며, 자아이미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2.7%이다.

이와 같이 교수자이미지, 교수자음성이미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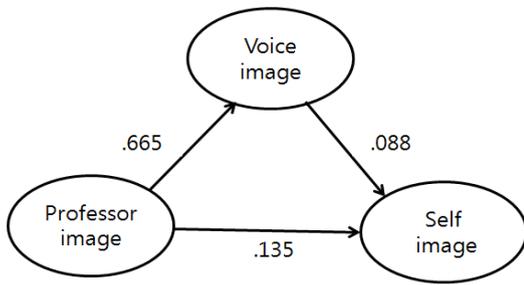


Fig. 1. Mediated effect test result

4.3.2 Sobel 검정

교수자이미지가 자아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교수자음성이미지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Sobel test를 Table 4와 같이 실시하였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voice image: Sobel Test

			B	SE	z	p
Professor image	→	Voice image	.665	.048		
Professor Voice image	→	Self image	.088	.030	2.869	<.01

그 결과는 교수자음성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z = 2.869, p < .01$).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면($B=.665$) 교수자음성이미지 수준이 높아져 자아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이미지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59(B=0.665 \times 0.088=0.059)$ 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첫째,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와 교수자음성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자음성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수희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10].

둘째,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음성이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교수자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면 교수자음성이미지 수준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자아이미지 수준이 향상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5.2 제언

결론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교수자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게 향상되었을 때 교수자음성이미지도 향상되어지고 이로 인해 “대학생 자신의 자아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강사들을 활용한 교수자음성이미지와 관련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적인 연구로 교수자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의 결과 밝혀냄으로써 대학생들의 자아이미지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 J. Lim & S. H. Choi. (2008). C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Country Image? : A Study of Overseas Korean Firms in Chin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8(4), 311-328.

[2] Y. H. Song. (2017). Comparing Level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Field Experi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47-152.
DOI : 10.22156/CS4SMB.2017.7.3.147

[3] S. Y. Kim.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2), 11-16.
DOI : 10.22156/cs4smb.2017.7.3.147

[4] H. W. Kim. (2011). *Search for the Improving*

Measures of Music Curriculum of Korean Music Majors in the College of Music through the Faculty's Opin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5] D. K. Yoon.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rvant Leadership in Hotel Organization on the Attitude of Employees.* Daegu University, Daegu.

[6]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 : 10.1037//0033-295x.84.2.191

[7] H. K. Park. (2012). *The effect of image and lecture of distance education lecturer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erceived learning effect.* Korea University, Seoul.

[8] K. S. Kim. (2007). *The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Instructors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Focusing on Instructor's Image and Lecture.* Ajou University, Suwon.

[9] H. J. Lee. (2008). *Impact of Image Evaluation and Image Formation on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ha University, Incheon.

[10] S. H. Lim. (2012). *The influence of Lecturer's Image on Self-Imag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Cheongyang.

[11] M. S. Moon. (2009). *Cheong, Humor, Professor-Student Exchange, and School Commitment.* Dongyang University, Yeongju.

[12] Y. S. Song. (1989). Educational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tendency of self - concept structure. *Korean Education Association*, 28(1), 85-103.

[13] B. H. Kim. (2009). *An Analysis of Physical Teachers' Images o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and University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4] M. J. Horn & L.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5] Y. R. Kim. (2005). *A Study on the Causes of Undergraduates' Receiving the Reality of the Media : Centering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 Identification of Media and Mainstreaming Effect.* Chung-Ang University, Seoul.

[16] J. Y. No. (1996). *Effects of Improvement Training on Teaching Behaviors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1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저 자 소 개

김 정 열(Jeoung-Yeoul Kim)

[중신회원]



- 2003년 8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학사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석사
 - 2012년 8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홍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다문화, 융합교육